

## 6월 실국장회의 모두말씀자료(시장님)

'21. 6. 7. [월] 14:00 / 온나라PC영상회의

### □ 폭우, 코로나 19 등 재난안전 대응 철저

한해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6월임.

날씨 이야기부터 하자면 지난 5월 수도권 강수일수는 15.3일로, 이틀에 한 번 꼴로 비가 왔고 강수량도 예년에 비해 약 1.8배 많았다고 함.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생각함.

다가올 여름 장마와 폭우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난해 폭우로 인한 여러 지역의 재난 사례들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의 여름철 재난대응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 바람. 6월 안전정책점검회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시장이 직접 군구와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준비 바람.

최근 2주간 하루 코로나 확진자 발생은 20명 이내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오늘부터 60~64세까지의 연령층과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교사 등 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코로나의 안정적 방역과 함께 보다 많은 시민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집단면역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집중해주기 바람.

아직까지 백신의 안전성에 의문을 갖거나, 접종 방법을 몰라 접종 기회를 놓치고 계신 시민들은 없는지, 행정국이 중심을 잡고 건강체육국 등 전 실국이 함께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신속히 조치해 주기 바람.

### □ 인천독립 40주년, 의미 있는 행사로 준비해야

모두 아시다시피 오는 7월 1일은 우리 인천시가 독립적인 광역지방정부가 된 지 40년이 되는 날임.

1981년 7월 1일은 우리 인천시 공무원은 물론이고 300만 인천시민의 삶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 계기였음. 1981년부터 시작한 독자적인 재정과 행정운영으로 시민들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도시의 성장도 이룰 수 있었으며, 이는 1991년 지방의회 출범과 1995년 민선자치의 시작으로 더욱 강화되었음

수치로만 따져 봐도 1981년 대비 현재 인구는 3배, 면적은 5배, 지역내 총생산은 약 90조원으로 약 20배 증가했고, 그간 인천은 항구와 항만, 국가 산단, 발전소 등 산업기반과 가장 성공한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끌었음.

전국 각지에서 희망과 성공의 꿈을 안고 모여든 사람들이 오늘의 300만 인천 시민이 되었음. 인천 시민들은 5.3. 인천 민주항쟁, 노동운동 등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에도 큰 역할을 해 주셨음.

이렇듯 지난 40년의 인천 역사는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성과이자 발자취임.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점에 공감하시고 '인천 독립 40년, 궁지의 역사 희망의 미래'라는 슬로건을 뽑아 주셨음.

시민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슬로건처럼 인천독립 40년 행사가 300만 시민들과 함께 궁지의 역사를 돌아보고 자랑하며, 또 미래를 향한 희망을 그려봄으로써 인천시민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람.

또, 6월말이면 민선7기 시 정부가 만 3년을 맞이함. 민선7기 시 정부는 지난 40년의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와 상처를 극복하고 더욱 큰 도약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했음.

인천형 뉴딜을 통한 인천 경제의 고부가가치화!

산업화 과정에서 희생을 감수해야 했던 인천의 환경을 치유하는  
자원순환 대전환과 탄소 중립 정책의 본격적인 시작!  
민관 갈등으로 중단되었던 각종 사업의 정상화!  
군사시설과 산업시설에 빼앗긴 공간들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 회복! 등  
정말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 냈음.

앞으로 남은 민선7기 1년동안 민선7기 주요 사업의 깔끔한 마무리와 함께  
인천 독립 40주년을 계기로 희망과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논의해야 함.

남은 기간 동안 시민들이 인천 독립 40년의 의미를 공감하고,  
행사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해주길 다시한번 당부함.

#### □ 인천지역 예산정책협의회 후속 조치 이행 철저

지난 5월 28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했음.  
국비 확보 건의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종료, 바이오 랩허브 유치,  
GTX-D Y자 노선 반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공유하고  
여·야가 힘을 모으기로 한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음.  
지역 정치권도 하나로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세부 내용은 실국장님들이 책임감을 갖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특히 국비확보에 있어 이번 달부터 기재부 예산 심의가 본격화 되는 만큼  
실국장님들은 심의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도 긴밀한 소통체계를 유지할 것을 당부함.

**6월 한 달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